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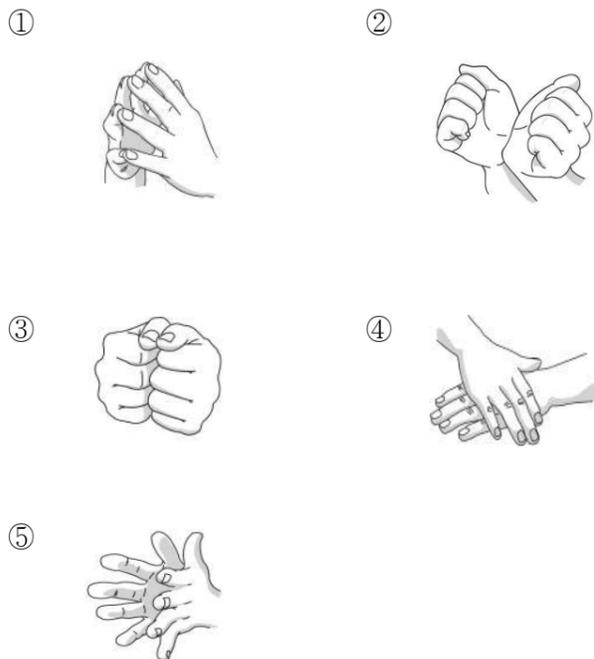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 ②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 ③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⑤ 특정한 것을 보통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2. (물음) 강좌에서 설명한 박수가 아닌 것은? [1점]



3. (물음) 다음은 '우리 학교의 급식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지이다. 수업에서 언급한 '잘못된 질문'이 아닌 것은?

설문지

※ 이 설문은 우리 학교의 급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 00.

- 우리 학교 급식 메뉴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
- 우리 학교 급식은 질이 좋고 맛있다고 생각합니까? ... ②
()
- 우리 학교 급식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은 무엇입니까? ③
()
- 급식은 대체로 맛이 없는데, 우리 학교 급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④
()
- 위생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학교 급식실의 위생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⑤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의 원인을 나열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물음) 대화를 듣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군.
- ②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에 신경 써야겠군.
- ③ 첫인상이 좋은 사람도 자주 봐야 그 이미지가 더 좋아지겠군.
- ④ 처음 만나 호감도가 낮은 사람은 자주 보아도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겠군.
- ⑤ 선거 때 후보들은 길거리 유세를 하기 전에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군.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언어 영역

6.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적절한 연상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
남에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에 맞게 살아야 한다.



↓
편견을 갖고 남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7. ‘독서 동아리’를 홍보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자 분석	○ 학생들은 독서를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략 수립	○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독서 동아리 활동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①
자료 수집	○ 재미있고 다양한 독서 활동 사례를 수집한다. ② ○ 청소년의 독서량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③ ○ 독서 동아리 선배들의 대학 진학 상황을 수집한다.
내용 선정	○ 독서 퀴즈 대회, 독서 캠프 등을 통해 책 읽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 문학 기행, 저자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통해 독서 동아리 활동의 유익함을 제시한다. ④ ○ 독서 동아리 활동이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사례를 제시한다. ⑤
내용 조직	○ ‘흥미 유발 → 구체적 사례 제시 → 가입 유도’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8.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글의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다. 처음에는 의사였고, 그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리고 회사를 차려 사장이 되었다가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의사로 활동한 경험도, 프로그램 개발 경력도,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학생을 가르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_____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정서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

- ① 병을 치료해 주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②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스스로 찾아보고 경험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③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도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하였다. 청소년기의 실패는 인생의 열매를 알차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④ 인생의 바다에는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들이 대가 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들의 활동을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인생의 성패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안타깝다. 젊은 시절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서 얻은 경험은 보석 같은 것이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

9. <보기>의 글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막 지방 사람들은 여름에 ㉠ 햇빛 흡수가 용이한 검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검은 색 옷을 입으면 ㉡ 흰색 옷보다 옷 안의 온도가 6℃ 가량 더 올라간다. 따뜻해진 옷 안의 공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옷의 윗부분으로 올라와 목으로 빠져나간다. ㉢ 그런데 바깥의 공기가 다시 옷 안으로 스며든다. 이처럼 ㉣ 공기의 순환은 옷의 안과 밖을 돌기 때문에 옷 안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 시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막에서는 여름에 검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 오히려 생활의 지혜가 된다.

- ① ㉠은 ‘햇빛이 잘 흡수되는’으로 고치면 더 쉬워지겠어.
- ② ㉡은 비교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흰색 옷을 입을 때보다’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리고’로 바꿔야겠어.
- ④ ㉣은 뒤에 오는 ‘돌기 때문에’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기가’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뜻을 강조하기 위해 ‘가급적’으로 바꾸어야겠어.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에나 올라서서 / 바다를 보라
사면(四面)에 백열리*, 창파(滄波) 중에
객선(客船)만 뚱뚱.....떠나간다

명산대찰(名山大刹)이 그 어디메나
향안, 향탑*, 대그릇에
석양이 산머리 넘어가고
사면에 백열리, 물소리라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鄉) 하옵소서.”
객선만 뚱뚱..... 떠나간다
사면에 백열리, 나 어찌 갈까

까투리도 산 속에 새끼치고
타관만리(他關萬里)에 와 있노라고
산 중(山中)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들어나 내려오면 / 치어다보라
해님과 달님이 넘나든 고개
구름만 첩첩.....떠돌아간다

— 김소월, 「집 생각」 —

* 백열리(百 열리) : 백십 리

* 향안(香案), 향탑(香榻) : 제사 때 향로나 그릇을 올려 놓는 상

(나) 혼자만 와서 불타는 저녁 노을은
내게 있어 한 고통거리다 / 가슴을 헤치고
혼자만 와서 불타는 저녁 노을을
원망하며 바라본다

[A] 노을 속에서는
언제나 우렁찬 만세 소리가 들리고
누님의 얼굴이 환히 비친다
이러한 때 / 노을은 신이 나서 붉은 물감을
함부로 칠하며
복을 치고 농부들같이 춤을 춘다
한 컵의 냉수를 마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맞는 나의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을 쳐다보는 사람은 벌써
도시에 없다.

— 김규동, 「노을과 시」 —

(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下山)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B]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文明)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대 현실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 ③ (나)와 (다)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가)~(다)는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 ⑤ (가)~(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슬픔이 심화되고 있다.

14.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은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오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② ‘백열리’는 화자가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나타낸다.
- ③ ‘객선’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 ④ ‘까투리’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⑤ ‘구름’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킨다.

1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6. (다)를 영상시로 제작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계천 상가에서 방울을 유심히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필요하겠어.
- ② 영롱한 소리를 내던 방울을 단 소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야겠어.
- ③ 소의 방울소리와 대조되도록 삼륜차의 경적이 시끄럽게 울리는 장면을 넣어야겠어.
- ④ 저녁 무렵의 마을을 바라보며 소를 몰고 산에서 내려오던 어린 ‘나’의 모습을 표현해야겠어.
- ⑤ 방울소리가 옥분이네 안방까지 들리도록 방울을 크게 울리며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담아야겠어.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시대 백성들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로 신문고와 상언·격쟁이 있었다. 신문고는 태종이 중국의 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담당 관원에게 호소해야 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를 찾아가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신문고를 칠 기회가 주어졌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고을 수령, 관찰사, 사헌부의 순으로 호소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신문고를 칠 기회가 주어졌다.

신문고를 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설치된 의금부의 당직청을 찾았다. 그러면 신문고를 지키는 영사(令史)가 의금부 관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관리는 사유를 확인하여 역모에 관한 일이면 바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득실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서를 조사한 다음에야 북 치는 것을 허락했다. 신문고를 치면 의금부의 관원이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된 사안에 대해 왕이 지시를 내리면 해당 관청에서는 5일 안에 처리해야 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이 사실이면 이를 해결해 주었고, 거짓이면 엄한 벌을 내렸으며, 그 일과 관련된 담당 관원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수령이나 관찰사 또는 서울의 해당 관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신문고를 통해 왕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를 통해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았다. 또한 중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도 신문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고는 결국 중종 이후 그 기능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자 상언과 격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상언은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격쟁은 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시끄럽게 징을 울려 왕의 이목을 끈 다음,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제도였다. 상언은 신문고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 쉬운 것이었지만, 글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로 양반층이 이용하였다. 반면 격쟁은 글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평민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나, 격쟁을 하는 사람은 먼저 형조의 취조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19세기에 들어서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백성들에 대한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이 심해지면서 상언과 격쟁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었다.

그렇게 되자 어려움을 풀 길이 막힌 백성들은 지방관이나 악덕 지주들의 죄상을 폭로하기 위해 집단으로 상급 기관에 항의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대응하기도 했다.

17. 위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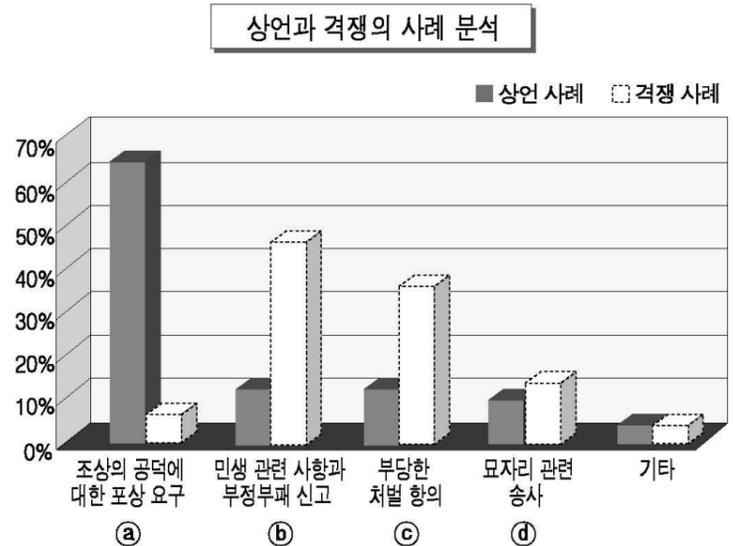
ㄱ. 대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ㄴ.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ㄷ. 잘 알려진 사실에 빗대어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ㄹ.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신문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헌부의 책임 하에 두었다.
 ② 사안에 따라 이용 절차가 달랐다.
 ③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④ 실제로 이용하기가 까다로웠다.
 ⑤ 지방에 사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었다.

19. [A]를 바탕으로 아래의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격쟁이 적은 것은 왕권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② (a) : 상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양반들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③ (b) : 격쟁이 많은 것은 왕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④ (c) : 상언이 격쟁보다 적은 것은 상언의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⑤ (d) : 상언과 격쟁의 비율이 비슷한 것은 제약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사(調査)하였다 ② 추궁(追窮)하였다
 ③ 전가(轉嫁)하였다 ④ 부과(賦課)하였다
 ⑤ 문의(問議)하였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들어 귀에 조그마한 이어폰을 꽂고 통화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기존의 핸드프리(Hands-free)라면 휴대전화에 연결된 선이 보여야 할 텐데 선이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선 없이 통화할 수 있을까? 바로 블루투스 기술 덕분이다. 블루투스라는 명칭은 10세기 무렵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바이킹인 ‘헤럴드 블루투스’에서 따온 것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루투스는 각종 디지털 장치의 무선통신 규격을 통일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블루투스 기술은 10m 내외의 거리에서 최대 1메가비피에스(Mbps)의 속도로 두 개 이상의 이동 기기를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최대 8개의 이동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동시에 원격 제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정권 안에 있는 기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방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이동단말기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술이 사용하는 2.4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은 국가가 특정 사업자에게 임대·판매한 주파수가 아닌 공용 주파수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단추 크기의 리튬 이온 배터리 하나로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몇 달에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블루투스 기술은 무선랜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지만 연결하는 대상이 다르다. 무선랜이 주로 컴퓨터, 이동단말기 등을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라면, 블루투스는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컴퓨터, 휴대전화 등과 연결해 주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선 장치로는 USB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블루투스의 전송 속도는 USB의 전송 속도보다 느려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에는 고속 블루투스 기술이 있다. 고속 블루투스 기술은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에 충분한 10~24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캠코더를 텔레비전에 무선으로 연결해 영상을 화면에 재생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곧장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캠코더 등의 보급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 대용량의 사진, 노래, 동영상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과 공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에는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이 있다.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은 기기 사이를 보다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 전력 소모가 기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은 전지 한 개의 수명이 10년 이상 ㉠ 간다. 특히 초소형, 저가격, 저전력을 요구하는 의료, 건강 등의 분야에서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된 센서와 의료 기기를 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의료 정보를 무선으로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온 것이다.

21.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화하는 블루투스
- 기술의 진보, 생활의 혁신
- ② 무선의 혁명 블루투스
- 공용 주파수의 무료 사용
- ③ 신기술 블루투스의 의미
- 무선 통신의 규격 통일
- ④ 블루투스와 무선랜의 미래
- 꿈의 기술, 행복한 생활
- ⑤ 블루투스의 원격 조정 기술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실현

22. [A]를 바탕으로 제품 설명서를 만들었을 때, <보기>의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제품 상세 사양	
㉠ 사용주파수	… 2.4GHz
㉡ 무선사용거리	… 10 m 내외
㉢ 속도	… 1Mbps
㉣ 전원	… 리튬 이온 배터리
㉤ 연속통화시간	… 8시간



블루투스 헤드셋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3.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블루투스 기술은 유선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이 지닌 불편함 때문에 개발된 것이겠군.
- ②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겠군.
- ③ 고속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면 앞으로 컴퓨터를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도 있겠군.
- ④ 블루투스 기술은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군.
- ⑤ 현재 블루투스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는 USB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군.

24. 밑줄 친 단어 중,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자꾸 그 일에 마음이 간다.
- ② 진실한 우정만이 평생 간다.
- ③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 간다.
- ④ 아무리 해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 ⑤ 전깃불이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흔히 사람들은 ㉠ 타악기가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현악기와 관악기가 내는 소리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러시아 태생의 음악가인 스트라빈스키는 타악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혹독한 겨울을 나아 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앙난방 장치에 빗대었다.

(나) 사실 타악기야말로 가장 원초적이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악기다. 타악기에는 팀파니, 심벌즈, 실로폰, ㉡ 마림바, 차임벨 등 종류가 수없이 많아 그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손뼉을 쳐 소리를 내는 것도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바비 맥퍼틴이라는 재즈 연주자는 자신의 몸을 타악기처럼 두드려서 연주를 한다.

(다)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악기는 팀파니(timpani)다. 팀파니는 급작스러운 충격을 표현하거나 분위기를 바꿀 때, 그리고 리듬을 반복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팀파니는 페달을 사용하여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미끄러지듯 연주할 수 있다. 큰북과 작은북은 음정을 조절할 수 없는 반면, 팀파니는 나사와 페달을 이용하여 음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정규 편성 오케스트라에는 3개의 팀파니가 사용되는데, 팀파니는 음악을 클라이맥스로 몰고 가는 데 빠질 수 없는 악기다. 팀파니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작품으로는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과 <팀파니 미사곡>이 있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서는 작품 전체에서 팀파니가 사용되고 있다.

(라) 심벌즈(cymbals)는 중앙에 손잡이 줄을 때는 돌기가 나와 있으며, 양쪽 가장자리만 서로 닿아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만든다. 심벌즈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팀파니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겨우 몇 마디만을 연주하고 끝나는 때도 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같은 경우 90분이 넘는 연주 시간에서 심벌즈는 겨우 3초 정도만 연주한다. 이 3초를 위해 심벌즈 연주자는 연주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방심해서 1초라도 빗나가는 순간 모든 연주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심벌즈 연주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 실로폰(xylophone)은 길이가 다른 나무 막대를 실로폰 채로 두드려 음정을 만들어 내고, 두드리는 속도를 조절하여 박자를 만들어 내는 악기이다. 실로폰은 소리가 건조하고 울림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연주 작품에 더 잘 어울린다. 반면 실로폰의 외형과 매우 흡사한 마림바(marimba)는 음판 밑에 공명관이 붙어 있어 음향이 실로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울림이 오래간다. 하지만 소리가 부드러운 반면 약하기 때문에 마림바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주로 독주 악기로 사용된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큰북과 작은북은 음정을 조절할 수 없다.
- ② 팀파니는 음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실로폰은 소리가 건조하고 울림이 오래 가지 않는다.
- ④ 마림바는 소리가 부드럽고 약해 주로 독주 악기로 쓰인다.
- ⑤ 심벌즈는 가장자리의 두께가 얇아서 오래 연주할 수 없다.

26. (가)~(마)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나) : 대상의 종류를 보여 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③ (다) : 대상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른 대상과 견주고 있다.
- ④ (라) : 대상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하위 요소를 분류하고 있다.

27. (마)를 참고할 때, <보기>의 '노래하는 고속도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주행 시 음정 박자 어떻게 나오나?

시속 100km로 차를 운전하면 동요 '비행기'의 멜로디가 연주되는 '노래하는 고속도로'가 등장했다. 위의 그림은 노래하는 고속도로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노래하는 고속도로는 2.4cm 너비의 홈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파서 소리를 내게 한 것이다. 음정은 홈과 홈 사이의 간격으로, 박자는 홈의 개수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2.4cm의 홈을 10.6cm의 간격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10m 달리면 1/2박의 '도' 음이 난다. 또 2.4cm의 홈을 9.5cm의 간격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5m 달리면 1/4박의 '레' 음이 난다.

- ① 실로폰을 빨리 두드리면 박자가 빨라지듯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면 노래가 빨라질 것이다.
- ② 실로폰을 세게 두드리면 소리가 커지듯이 자동차의 바퀴 크기가 클수록 더 높은 음이 난다.
- ③ 실로폰에서와 같은 1박의 '미' 음이 내려면 8.4cm 간격으로 홈이 파인 도로를 20m 달려야 한다.
- ④ 홈과 홈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실로폰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나무 막대를 두드려 음정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 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홈의 개수를 조절하는 것은 실로폰에서 두드리는 속도를 조절해 박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하다.

28.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 :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집 : 한옥 ② 서점 : 책방 ③ 조상 : 후손
- ④ 안경 : 안경테 ⑤ 세모꼴 : 삼각형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복에 가족과 애인을 두고 온 아버지와 물질적 풍요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아는 어머니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한다. 큰아들 병국은 서울의 일류 대학을 다니다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을 당해 낙향하고, 재수생인 동생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철새들을 박제하는 일에 가담한다. 환경 문제에 뛰어난 병국은 도요새들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원인과 동진강의 환경 오염 실태 등을 추적하다가 새들의 죽음이 병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의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중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 “뻥뻥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도 뭘 하나?”

병국의 언성이 높아졌다. 여윈 목에 푸른 심줄이 불거졌다. 그때 늙은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 왔다.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릴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입자 있나? 형,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어쨌어?”

하고는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잔에다 술을 부었다.

㉢ “자, 우선 한잔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네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대.”

병국이 술이 찬 잔을 한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출렁거린 술이 반쯤 식탁 위에 쏟아졌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순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쳐.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삼십억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어. 그 중 내가 오십 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구.”

㉣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아우의 떡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개시도 안 한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소리쳤다.

“난 못 볼겠다. 그래, 고발 좋아한담 고발해 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을 차지!”

병식이 형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 “형도 구치소꺼나 출입했으니 아운들 햇볕만 보란 법은 없으니깐.”

“이 자식, 말이면 다야!”

순간 병국의 주먹이 아우의 턱을 갈겼다. 병식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금세 입술 사이에서 피가 내비쳤다.

“쳐, 정말 형이 날 쳤어!”

병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의자와 술상 사이로 빠져 나오더니 형의 허리를 억세게 조여 안았다. 병국의 몸이 마른 장작개 비처럼 번쩍 들렸다. 병식은 형을 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옆에 있던 의자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형의 면상에다 내리찍으려 하다 손에 힘을 뺐더니 그만 내려놓았다.

“형, 오늘은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정말 다구리 탈 짓*을 했담 형한테 얼마든지 맞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죽인 것도 아니구, 족제비

란 친구를 따라 심심풀이로 같이 다녔는데, 뭘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병식은 백 원짜리 동전 세 개를 소리 나게 놓았다. 입술의 피를 닦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더니 재빨리 출입문을 열었다.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꼭 들어와!”

모뎀이로 쓰러졌던 병국이 상체를 일으키며 외쳤다. 그러나 병식은 이미 술집을 나서 버린 뒤였다. (중략)

병국은 정배 형의 학교로 전화라도 한 통 걸까 하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았다. 퇴근 시간 무렵이라 개펄로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권해볼 심산이었다. 그럴 사이 마침 버스 정류소에 도착했고, 옹포리행 차가 와서 올라타고 말았다. 제일 뒷좌석이 비어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 병국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잠을 자듯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

눈앞에 수백 마리의 도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 무공 천지를 가르며 점점이 날고 있었다. 날개를 파닥파닥 상하로 쳐 대며 바람에 쫓기듯 빠라처럼 남으로 남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병국의 눈앞에 한 마리의 도요새가 무리에게 떨어져 나와 힘없이 처져 날더니 저공으로 떨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낙오된 새는 지쳐 더 날 힘을 잃고 꽃잎 지듯 바다로 향해 떨어졌다. 암흑 천지의 밤이었다. 파도는 높았고 바람은 드세었다. 멀리로 깜박깜박 등대 불빛이 보였다. 도요새 무리는 등대 불빛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가린 등대의 몸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몇 십 마리의 새가 등대 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다시 낮이었다. 강 하구와 벼를 베고 난 논바닥에서 도요새 무리가 쉬고 있었다. 하늘 높이 점처럼 떠 있던 때 한 마리가 갑자기 수직으로 쏠살같이 떨어져 왔다. 매는 미처 날 틈을 못 찾고 쫓음걸음을 하는 도요새 한 마리를 쉽게 포획했다. 포획당한 도요새가 매의 날카로운 발톱에 찍힌 채 애처롭게 울 동안 다른 도요새 무리는 재빠르게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또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그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먹이가 도요새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되었다. 자유로운 삶의 터를 찾아 고통의 길고 긴 도정 중에 나는 그렇게 낙오되는 도요새가 아닐까. 대열에서 낙오되는 그 수효가 몇 백 마리, 아니 몇 천 마리 중의 하나일지라도 내가 바로 그 하나가 되어 죽어 버린 것이 아닐까. 설령 이렇게 숨쉬며 살아 있어도 혼이 빠져 버린 가사 상태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이 꼬리를 물고 그의 얼을 뿔었다.

“중점이에요. 손님은 안 내리셔요?”

병국이 눈을 뜨니 버스 안내원이었다.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병국은 쫓기듯 버스에서 내렸다. 옹포리였다. 그는 주차장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해풍이 시원하게 그의 얼굴을 훑었다. 그는 모래톱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끝닿은 데 없이 펼쳐진 바다 멀리로 시선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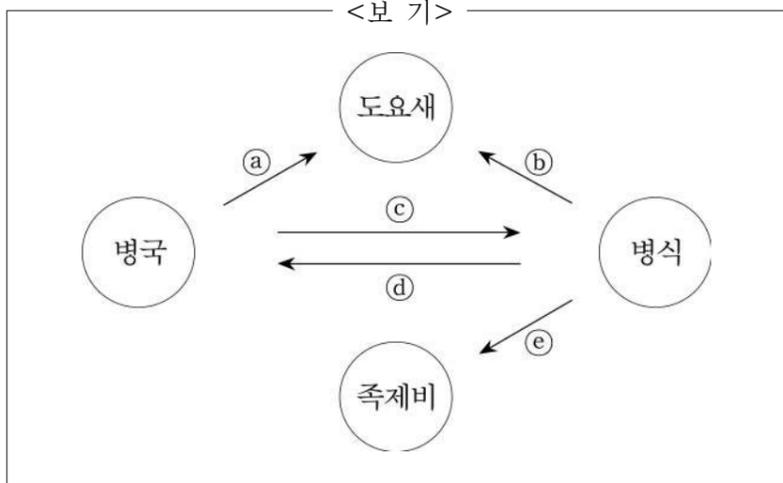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다구리 탈 짓 : 못매 맞을 짓

2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병식은 잘못된 게 없다는 듯 자신 있게 말하고 있군.
- ② ㉡ : 병국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병식을 비웃고 있군.
- ③ ㉢ : 병식은 충동을 피하기 위해 화제를 돌리려 하는군.
- ④ ㉣ : 병국은 병식에게 화가 나서 덤벼들 듯 다그치고 있군.
- ⑤ ㉤ : 병식은 병국의 아픔을 들추어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군.

30. 위 글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병국은 도요새를 자신과 동일한 처지라고 생각한다.
- ② ㉡ : 병식은 도요새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 ③ ㉢ : 병국은 병식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 : 병식은 병국을 현실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⑤ ㉤ : 병식은 '죽제비'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1.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소설은 주로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 삶과 관련된 작가의 생각을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 환상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 시점의 전환을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인물의 다양한 생각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2.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의미를 바르게 묶은 것은?

슬 집	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간의 가치 충돌이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 (㉠) ◦ 과거와 달리 예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a) ◦ 주인공의 욕망이 정화되는 공간 (b) ◦ 주인공이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 (c)

- ① (㉠) - (a)
- ② (㉠) - (b)
- ③ (㉠) - (c)
- ④ (㉡) - (b)
- ⑤ (㉡) - (c)

[33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사에 '없다'를 붙여 만든 단어 가운데 형태상으로 보면 원래의 단어와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모습이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에다가 다른 의미까지 함께 지니게 되어 단어 자체에 의미적 모순이 생기게 된다.

“저 사람 참 밥맛없게 굴지?”
 “개 정말 밥맛이야.”
 [A]
 “엉터리없는 수작 부리지 마.”
 “그 사람 말은 엉터리야.”

'밥맛'은 글자 그대로 '밥에서 나는 맛'이지만 대개는 의미가 확장되어 '밥을 비롯한 음식이 입에 당기어 먹고 싶은 상태'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당연히 '밥맛이 있다/없다'로 써야 한다. '밥맛(이)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입맛이 없거나 해서 음식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때는 단어 각각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밥맛 없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밥맛없다'라고 붙여서 한 단어로 쓰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담은 말이 된다. 이때는 '아니꼽고 기가 차서 정이 떨어지거나 상대하기가 싫다'라는 뜻의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뒤에 오는 부정어를 잘라내고 단순히 '밥맛이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밥맛'이 '밥맛없다'를 대체하게 되어 '밥맛'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런 표현이 문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글에 써서는 안 된다.

'엉터리'는 의미 변화의 정도가 한 단계 더 진행된 경우이다. '엉터리'는 본래 긍정적인 뜻으로 '사물이나 일의 대강의 윤곽'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일주일 만에 겨우 엉터리가 잡혔다.”처럼 쓰인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부정어를 붙여 ‘엉터리없다’라고 표현하던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뒤의 부정어는 잘라 버리고 ‘엉터리이다’ 식으로 쓰다 보니, 아예 ‘엉터리’라는 단어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전에 올라 있다. 오히려 요즘은 ‘엉터리없다’보다는 ‘엉터리’가 더 익숙하게 들릴 정도다.

이처럼 '밥맛'이나 '엉터리'에서 보듯이 단어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단어의 의미 변화는 ㉠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의미 확대', 사용 범위가 좁아지는 '의미 축소', 전혀 다른 의미 영역으로 바뀌는 '의미 이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단어의 의미는 언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의미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 앞에서 말한 '밥맛없다-밥맛', '엉터리없다-엉터리'의 예와 같은 언어 현상은 언어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33. 밑줄 친 낱말 중, [A]에 나타난 언어 현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것이 문제로군.”
- ② “보통 안목이 아니군.”
- ③ “이 어려운 형편에…….”
- ④ “그래, 그 사람 주책이지.”
- 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34. ㉠과 관련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그 운전기사는 참 점잖은 양반이야.
 ㄴ. 수돗가에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어라.
 ㄷ. 이번 달 우리 학교의 저축왕은 누가 될까?
 ㄹ.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냈다.
 ㅁ. 그때 어여쁜 미인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 ① ㄱ의 '양반'은 옛날에는 '높은 신분'을 뜻하였으므로 의미 축소로 볼 수 있겠군.
- ② ㄴ의 '얼굴'은 옛날에는 '몸 전체'를 뜻하였으므로 의미 축소로 볼 수 있겠군.
- ③ ㄷ의 '왕'은 옛날과 달리 '한 분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의미 확대로 볼 수 있겠군.
- ④ ㄹ에서 '어린'은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의미 이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ㅁ에서 '어여쁜'은 옛날에는 '불쌍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의미 이동으로 볼 수 있겠군.

35. ㉠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 ② 의미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 ③ 의미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 ④ 의미가 변화된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 ⑤ 변화된 의미를 사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저분한 물골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민중을 보며, 믿을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출한 한두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며, '어떻게 해야 저들을 번듯한 인간으로 살게 해 줄 수 있을까?'를 폭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하인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고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민중의 불쌍한 처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철없는 민중들의 '무질서'를 두려워했다.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루소 이전 사상가들의 진짜 고민이었다. 결국 답은 한 가지뿐이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는 매가 약이듯이 민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복종하지 않고 멋대로 굴면 죽음뿐이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그래서 왕에게 반항한 죄인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루소 이전의 지배층과 민중 사이의 '사회 계약'은 일종의 수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 계약은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즉 모든 민중이 왕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맹세였을 뿐이다.

그러나 루소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힘으로 민중

들을 억누르고 공포심을 일으켜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상가들의 생각을 거부했다. 루소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믿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는, 지배계급의 힘에 눌려서 아무 일 없이 조용하기만 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한 차원 높은 '질서'를 꿈꾸었던 것이다. 루소가 주장했던 사회 계약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함께 묶는 수평적인 계약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뭉쳐서 창조한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이 오로지 '통제'만을 생각했던 것에 비해 루소는 '협동'을 떠올렸다.

개인은 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어떻게 해야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는 민중을 내려다보며 한심해 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한 최초의 사상가였던 것이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민중보다 더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 ② 루소는 공동체 구성원이 수평적 계약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민중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루소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⑤ 루소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협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37. ㉠과 <보기>의 ㉡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

— <보 기> —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 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 한용운, 「복종」 -

- ① ㉠과 ㉡는 모두 강제적이다.
- ② ㉠과 ㉡는 모두 능동적이다.
- ③ ㉠은 적극적인데 반해, ㉡는 소극적이다.
- ④ ㉠은 배타적인데 반해, ㉡는 타협적이다.
- ⑤ ㉠은 타율적인데 반해, ㉡는 자율적이다.

38. 위 글을 참고할 때, 루소가 말한 ‘사회 계약’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여행을 어머니의 입원으로 아버지가 취소한 경우
- ② 주민 대표가 주민들의 합의 없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한 경우
- ③ 체육 대회에서 학급 반장의 주도로 우승하여 학급 반장이 공로상을 받는 경우
- ④ 마을 청년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운영한 도서관이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준 경우
- ⑤ 회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연수회에 참여한 사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생명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숙주 세포에서 얻는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의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살아가는 바이러스는 숙주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어떤 미생물보다 더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다양성은 ‘돌연변이’나 ‘재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 ‘돌연변이(mutation)’란 유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의 치환, 삭제 또는 삽입이 일어남으로써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어진다.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 복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 약 10만~1000만 배 높다.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있다.

한편 ㉡ ‘재편성(reassortment)’은 분절화된 계놈*을 가지는 바이러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잘 나타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의 RNA가 8조각으로 나뉘어 하나의 계놈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8조각의 RNA가 다함께 있어야 한다. 사람, 조류, 돼지, 말 등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동성(相同性)은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돼지에 침투하여 증식할 경우, 각각의 8개 계놈 조각이 서로 섞여 재편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항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인체의 면역 체계는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위험 인자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에 대해 속수 무책인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항원의 ‘대변이(antigenic shift)’라 하며, 이러한 ‘대변이’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독감은 대개 이와 같은 ‘대변이’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조류 독감, 신종 플루(H1N1)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유전적 변이를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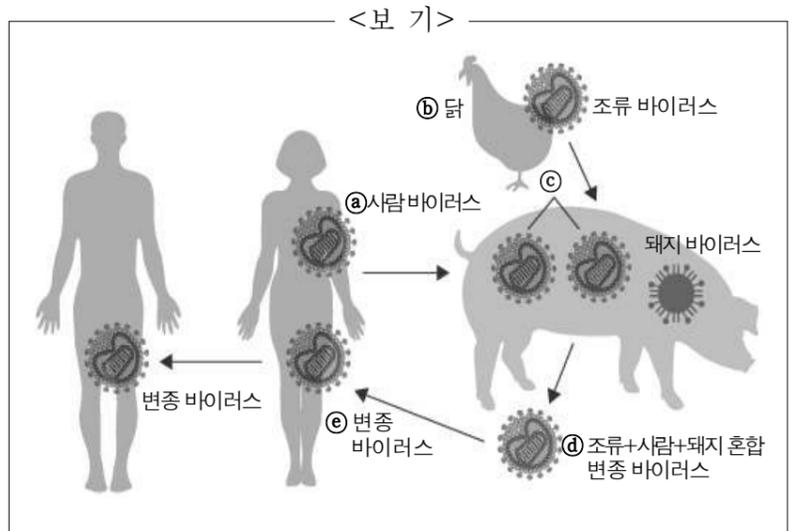
성은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백신의 개발, 세계적 보건 의료 체계 확립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 * 계놈 : 낱알의 생물체가 가진 한 쌍의 염색체
- * 항원 : 생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물질

39.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 ① 바이러스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②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 ③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④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한 숙주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⑤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0.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유전적 다양성의 결과로 생긴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 ② ㉡ : 조류 바이러스에 대한 숙주 역할을 한다.
- ③ ㉢ : 두 바이러스는 상동성은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④ ㉣ : 뉴클레오티드의 치환, 삭제 또는 삽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 ⑤ ㉤ : 인체의 면역 체계가 위험 인자로 인식하지 못한다.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잘 일어난다.
- ② ㉠과 ㉣은 모두 계놈 조각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 ③ ㉠과 ㉣은 모두 DNA 바이러스에서 더 잘 일어난다.
- ④ ㉠은 ㉣과 달리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에서 일어난다.
- ⑤ ㉣은 ㉠과 달리 유전자 복제 오류의 교정 과정에서 일어난다.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굶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넛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뺏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A] 향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발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네게 훔치랬나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발주인에게 뗏뗏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B] 오릉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발 두 뺨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 정약용, 「호박넛두리(南瓜歎)」 -

* 오릉중자: 전국시대 제(齊) 나라의 진중자(陳仲子)를 말한다. 귀족의 자제로 지나치게 청렴결백하여 자기 형이 받은 녹을 의롭지 않은 것이라 하여 먹지 않으며 자기 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먹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릉현으로 가서 자기는 신을 삼고 아내는 길쌈을 하면서 살아갔다.
 * 청운: 높은 지위나 벼슬

(나) 옛 성인도 날 못 보고 나도 옛 성인을 못 뵈,
 옛 성인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고. <제9곡>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는고.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말으리. <제10곡>

어리석은 자도 알고 하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 다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는 사이 늙는 줄을 몰라라. <제12곡>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다) 이덕무는 풍열로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 없는 중에도 어렵사리 실눈을 뜨고 책을 읽었던 ㉠ 책벌레였다. 열 손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밤뜰만하게 부어올라 피가 터질 지경 속에서도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써 보내던 그였다. 그는 마치 기갈 들린 사람처럼 책을 읽었다. 가난하여 책 살 돈이 없었기에 늘 남에게서 빌려 보았다. 한 권 책을 얻으면 기뻐 이를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을 베껴 적었다. 이렇게 읽은 책이 수만 권이었고, 파리 대가리만한 작은 글씨로 베낀 책만 수백 권이었다.

그는 왜 그토록 책 읽기에 집착했을까? 이덕무는 서열이었다. 품은 바 포부와는 관계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딱히 써먹을 데가 있는 것도 아

니었다. 그렇다고 살아갈 방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애초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 밖의 일이거나, 법을 범하고서야 가능한 부정 한 것이었기에 그 처절한 가난과 숙명의 굴레를 천명으로 알고 살았다. 견딜 수 없는 고비도 많았다.

내 집에 좋은 물건이라곤 단지 『맹자』 일곱 편뿐인데, 오랜 굶주림을 견딜 길 없어 2백 전에 팔아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소. 희희낙락하며 영재(冷齋) 유득공(柳得恭)에게 달려가 크게 뽐내었구려. 영재의 굶주림도 또한 하마 오래였던지라, 내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좌씨전』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술을 받아 나를 마시게 하지 뭐요. 이 어찌 맹자가 몸소 밥을 지어 나를 먹여 주고, 좌씨가 손수 술을 따라 내게 권하는 것과 무에 다르겠소. 이에 맹자와 좌씨를 한없이 찬송하였더라오. 그렇지만 우리들이 만약 해를 마치도록 이 두 책을 읽기만 했더라면 어찌 일찍이 조금의 굶주림인들 구할 수 있었겠소. 그래서 나는 겨우 알았소. 책 읽어 부귀를 구한다는 것은 모두 요행의 궤일 뿐이니, 곧장 팔아치워 한 번 거나하게 취하고 배불리 먹기를 도모하는 것이 박실(樸實)*함이 될 뿐 거짓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यो. 아야! 그대의 생각은 어떨소?

이덕무가 이서구(李書九, 1754~1825)에게 보낸 편지다. 주립을 견디다 못해 손때에 절은 『맹자』를 헌책방에 팔아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굶주린 배를 채웠다. “여보게! 이 사람. 오늘은 맹자가 내게 밥을 지어 주네그려.” 그 길로 친구 집에 달려가 툭 던지는 말이다. 이미 양식 떨어진 지가 여러 날째이던 유득공도 제 아끼던 『좌씨전』을 내다 팔아 쌀 사고 남은 돈으로 막걸리를 받아와 친구에게 따라주었다. 무엇이 그리 좋아 희희낙락했던가?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친구 집으로 달려갔던가? 또 그 와중에 제 주머니 사정 아랑곳않고 술을 받아와 벗에게 따라주던 유득공의 그 심사도 도무지 나는 헤아릴 길이 없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책 읽어 부귀를 꿈꾼다는 것은 애초에 허망한 일이 아니었더냐. 차라리 다 팔아치워 밥술이나 배불리 먹는 것이 더 낫지 않으랴!’ 이런 자조의 심정이었을까? 그러나 나는 알 수가 있다. ㉡ 제 손때 묻은 『맹자』가 흑 남의 손에 넘어가지나 않을까 싶어 하루가 멀다하고 헌책방을 기웃거렸을 그의 모습을 말이다.

- 정민, 『미쳐야 미친다』 -

* 박실(樸實): 순박하고 성실함

4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궁핍한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는 옛 성인을 닮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다)에는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드러나 있다.
- ④ (가)와 (다)에는 책읽기의 현실적 한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 (다)에는 삶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다.

43.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 아니,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당신! 왜 이렇게 심하게 애를 야단치고 있소? 대체 구월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①

아내 (답답한 듯)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 어린 호박을 따 죽을 쑤어 배를 채웠지만, 오늘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월이 저것이 글썸..... ②

나 (화나 있는 아내를 달래며) 참으시오. 구월이 내가 이야기해 보아라.

구월이 (울먹이며) 저도 사실은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주인어른 공부하러 가셔서 안 오시고 마님께서 굶주려 힘들어 하시길래 옆집의 호박을 훔쳐서라도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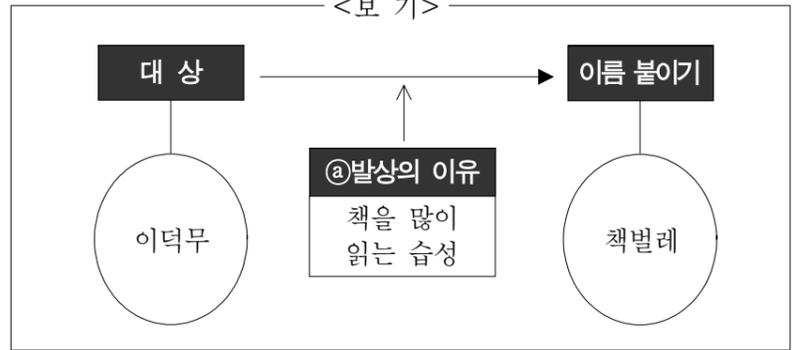
아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저것이 그래도. 누가 너더러도 독질하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④

나 (아내를 달래며) 부인, 이제 그만 하구려. 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소. 구월이 너는 당장 호박을 발주인에게 돌려주며 용서를 빌고 오너라. ⑤

44. (나)의 화자가 [B]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 속에 옛 사람이 가던 길이 있으니 열심히 책읽기를 하는 것이 청운에 오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② 가던 길을 버리고 배고픈 아내를 위해 금광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 ③ 어리석은 사람은 금광을 찾고 성인은 청운을 꿈꾸듯이 저도 더 이상 탄 데 마음은 두지 않을 것입니다.
- ④ 저도 한동안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런 삶을 후회하기 때문에 늙는 줄도 모르고 만 권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 ⑤ 옛 사람의 숨결이 남아 있는 가던 길을 가기 위해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45. ㉠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름을 붙인 이유가 <보기>의 ㉠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대길이가 아저씨 /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② 아들 바랬다가 딸 낳아 섭섭이 / 이번에도 아들 바랬다가 딸 낳아 또섭섭이 / 타관불이 복술이 영감땡감네 둘째딸
- ③ 병술이 동생 두 살 세 살 / 밥티 뜬 밥물 먹고 / 가물에 콩나 동네 젓 얻어 먹고 / 아직 이름도 없이 / 물똥 잘 싸니 / 물캐똥이라 불렀다
- ④ 산모인 어머니 달구지 고리 붙들고 / 비명을 질러대는데 / 그렇게 해서 시오릿길 가서 / 병원에 가 태어난 놈 / 구암병원이라 구암쇠라 부른 놈
- ⑤ 갈뉘 딸그마니네집 / 딸 셋 낳고 / 덕순이 / 복순이 / 길순이 셋 낳고 / 이번에도 숫덩이만 달린 딸이라 / 그래서 이놈 이름은 딸그마니가 되었구나

46. 글쓴이가 ㉠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덕무가 책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강했기 때문에
- ② 이덕무가 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 ③ 이덕무가 헌책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 ④ 이덕무가 주인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 ⑤ 이덕무가 베껴 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생(蔣生)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 기축년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密陽)의 좌수(座首)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 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비첩(婢妾)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農莊)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종이 상민(常民)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 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하였다.

그의 용모는 매우 우아하고 수려했으며 미목(眉目)도 그런 듯이 고왔다. 담소(談笑)를 잘하여 막힘이 없었고 더욱 노래를 잘 불렀으니 노랫소리가 처절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하였다. 기생들 집에도 다니지 않는 곳이 없어 잘 알고 지냈으며, 술만 있으면 곧바로 자기가 떠다가 잔뜩 마시고는 노래를 불러 아주 즐겁게 해 주고는 떠나가 버렸다.

어느 때는 ㉔ 술이 한창 취하면 맹인, 점쟁이, 술 취한 무당, 게으른 선비, 소박맞은 여인, 걸인, 노파들이 하는 짓을 흉내 냈으니, 하는 짓마다 아주 똑같이 해댔었다. 또 가면을 쓰고 열심히 십팔 나한(十八羅漢)을 흉내 내면 꼭 같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또 입을 찡그러서 피리, 거문고, 비파, 기러기, 고니, 무수리, 집오리, 갈매기, 학 등의 소리를 내는데, 진짜와 가짜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다. 밤에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를 내면 이웃 개나 닭이 모두 울고 짖어대는 지경이었다.

아침이면 밖으로 나와 거리나 저자에서 구걸을 했으니, 하루 동안에 얻는 것이 거의 서너 말[斗]이었다. 몇 되[升]쯤 끓여 먹고 나면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못 거지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다음 날에도 또 그와 같이 해 버리니 사람들은 그가 하는 짓을 헤아릴 수 없었다.

전에 악공(樂工) 이한(李漢)이라는 사람 집에서 더부살이한 적이 있었다. 머리를 쌍갈래로 땀은 계집이 호금(胡琴)*을 배우느라 조석(朝夕)으로 만나게 되어 서로 친숙하였다. 하루는 구슬로 이어진 자춧빛 ㉕ 봉미(鳳尾)*를 잃어버리고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였다. 연유를 들어 보니, 아침에 길 위에서 준수한 소년이 웃으며 농담을 붙이고 몸이 닿고 스치더니 이내 봉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더라. 그래서 장생은,

“우습구나. 어린것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아가씨야 울지 마라. 저녁이면 반드시 내 소매 속에 넣어 오겠다.”

하고는, 훌쩍 나가 버렸다.

저녁이 되자 계집아이를 불러내어 따라오게 하고서는, 서쪽 거리 결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신흠문(神虎門)의 모퉁이에 이르렀다. 계집의 허리를 큰 띠로 묶어 왼쪽 어깨에 들쳐 메고 풀쩍 뛰어, 몇 겹으로 겹친 문으로 날아서 들어갔다. 한창 어두울 때여서 길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급히 경회루(慶會樓)* 위로 올라가니 두 소년이 있었다. 촛불을 들고 마중 나와 서로 보며 꺾꺾 웃어대었다. 그러더니 상량 위의 뚫어진 구멍에서 금구슬, 비단, 명주가 무척 많이 나왔다. 계집이 잃어버린 봉미 또한 있었다.

소년들이 그것을 돌려주자 장생은,

“두 아우는 행동거지를 삼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나.”

하였다. 그런 뒤에 끌고 다시 날아서 북쪽 성(城)으로 나와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계집은 다음 날 밝기 전에 이 씨(李氏)의 집으로 가서 감사의 말을 하려 했더니 술이 취해 누워 코를 쿵쿨 골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밤에 외출했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임진년(선조 25년, 1592년) 4월 초하룻날 값을 뒤에 주기로 하고 술 몇 말[斗]을 사 와, 아주 취해서는 길을 가로막으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가 거의 밤이 되어 수표교(水標橋) 위에서 넘어졌다. 다음 날 해 뜬 지 늦어서야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는데, 죽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었다. 시체가 부패하여 ㉖ 벌레가 되더니 모두 날개가 돌아 전부 날아가 버려 하룻밤에 다 없어지고 오직 ㉗ 옷과 버선만이 남아 있었다.

무인(武人) 홍세희(洪世熹)라는 사람은 연화방(蓮花坊)에서 살았으니, 장생과 친하게 지냈었다. 4월에 이일(李鎰)이라는 사람을 따라 왜적을 방어했었다. 조령(鳥嶺)에 이르렀을 때 장생을 만났다. 그는 ㉘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면서 손을 붙잡고는 무척 기뻐하면서,

“나는 사실 죽지 않았소. 바다 동쪽으로 향하여 한 나라를 찾아 떠나 버렸소.”

하더라. 그러면서,

“그대는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니요. 병화(兵禍)가 있으면 높은 곳의 숲으로 향해 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정유년에는 삼가고 남쪽으로는 오지 마시오. 혹 공사(公事)의 주관한 일이 있더라도 산성(山城)으로 오르진 마시오.”

하고는 말을 끝마치자 날아서 가 버리니 잠깐 사이에 있는 곳을 알 수 없더라.

홍세희는 과연 탄금대(彈琴臺) 전투에서 그가 해 준 말을 기억해 내서 산 위로 달아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정유년(선조 30년, 1597년) 7월에 금군(禁軍)*으로 숙직을 할 때, 오리(梧里)* 정승에게 임금의 교지(教旨)를 전해 주느라 그가 경계해 준 것을 모두 잊었다. 돌아오면서 성주(星州)에 이르러 적군의 추격을 당하자, 황석성(黃石城)이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함을 듣고는 급히 달려갔는데, 성(城)이 함락되자 함께 죽고 말았다.

내가 젊은 시절에 협사(俠士)들과 친하게 지냈고, ㉙ 그와도 해학(諧謔)을 걸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잡기 놀이를 모두 구경하였다. 슬프다. 그는 신(神)이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말하던 검선(劍仙)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

-허균, 「장생전(蔣生傳)」-

* 호금(胡琴) : 비파

* 봉미(鳳尾) : 머리에 꽂는 노리개

* 경회루(慶會樓) : 경복궁 서쪽 연못 앞에 있는 누각

* 금군(禁軍) : 궁궐을 지키며 임금을 호위하는 병사

* 오리(梧里) : 당시 우의정 이원익의 호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낸다.
- ②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신비함을 강조한다.
- ③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설정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⑤ 일화적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4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주인공을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② ㉡ :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 ③ ㉢ : 주인공의 기이(奇異)한 죽음을 보여 준다.
- ④ ㉣ : 주인공이 속세에 미련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 ⑤ ㉣ : 주인공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한다.

49. ㉠ 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성어는? [1점]

- ① 인지상정(人之常情) ② 막역지우(莫逆之友)
- ③ 부창부수(夫唱婦隨) ④ 양상군자(梁上君子)
- ⑤ 견원지간(犬猿之間)

50. '장생'을 찾는 광고 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찾습니다



밀양에서 태어나기 죽년 무렵에 서울을 왕래하며 살던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장생(蔣生)

직업: 뚜렷하지 않음

< 특 징 >

- 이야기와 노래에 뛰어난 재주가 있음 ①
-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음 ②
- 구걸한 쌀을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줌 ③
- 계집아이의 잃어버린 봉미를 찾아 준 적이 있음 ④
- 피리, 거문고, 비파 등 악기 연주에 뛰어난 능력이 있음 ... 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